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매일 성경 11-12 월호 나왔습니다. \$6입니다.
- 예배 안내
 - 11월18일 추수감사주일
 - 12월16일 성례주일
세례: 송윤철, 이미경, Evelyn Song, Anderson Choi
입교: Eunice Ahn, Chris Ahn, Elisha Choi, Eliana Choi, Dael Ki, Daniel Seong, Janice Seong
 - 12월22일 성탄주일
 - 12월31일(월) 11 pm 송구영신 예배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1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기도: 한주루 권사 (시 127)

이번 주 친교: 김민아 집사, 한주루 권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 집사, 이미경 집사

제18권 43호

2018년 11월 4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박인주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 ----- Edwin Kim 전도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Matthew 23:1-12** -----Edwin Kim 전도사
 설교(Sermon)----- “**Do As You Preach/Teach**”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391장 (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 (Psalm) 146----- 최성국 집사
 찬양(Choir) -----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빌 4:4-20**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539장 (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 19:21; 롬 15:22-26; 행 23:11)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결박 당했습니다. 군중들에게 린치 당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순종해서 증언했으며, 순종해서 로마까지 가서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온전히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 다닌 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바울을 잠잠케 하려고 사탄이 온갖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뤄지는 도구였습니다. 점점 더 중요한 도시들로, 점점 더 핵심적인 청중들에게, 점점 더 절묘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유를 잃고 갇힌 몸이 되었지만, 바울은 성전의 순례자들에게, 공회에, 총독에게, 신임 총독과 왕 앞에서까지 예수를 증거합니다. 돈을 주고도, 권력으로도 모을 수 없는 청중입니다. 로마에도 묶인 몸으로 갔지만, 황제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를 증거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책략도 하나님 손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도, 사도들을 가둔 지도자들도 이미 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행 2:23; 4:28).

하나님의 주권 대로 이루신다고 해서 악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과 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보트처럼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음에도 마음을 굳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높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는 늘 우리가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만큼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결과의 끝을 알아야 선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아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내린 선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내린 선택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악인도 쓰임을 받고, 선한 자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이 구원이나 심판이냐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판가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뜻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입니까?